

##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반동적본질과 파산의 불가피성

류 정 원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부르조아어용학자들이 들고나오는 경제리론의 기만성과 그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꿰뚫어보아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62페이지)

정면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현대부르조아경제리론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꿰뚫어보는것은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체도를 굳건히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지역의 경제를 단일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켜 《전세계적범위에서의 경영》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세계적경영》론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벌이고있다.

1990년대초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는 비극적사태가 일어난 후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론자들은 《세계화》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그 일환으로서 경제의 《세계화》론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경제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전세계적범위에서의 경영》방식을 종합체계화한 《세계적경영》론을 제창하였다.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반동적본질을 까밝히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기만적인 《세계화》책동의 본질을 폭로분쇄함으로써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주체적립장과 민족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민족국가단위의 자립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더우기 그것은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이 떠벌이는 허위선전의 부당성을 과학리론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하여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은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출현과 반동적본질, 그 파산의 불가피성을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없애고 우리 당 경제정책을 옹호하고 빛내이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 2. 본 론

#### 2.1.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출현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은 이미전에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이 떠벌인 《세계화》론의

연장이고 그 실현을 위한 주요수단이다.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반동적본질을 정확히 까밝히기 위하여서는 《세계화》론의 발생변천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세계화》에 대한 론조가 처음으로 올려나온것은 1960년대였다.

1960년대에 대대적으로 출현한 다국적기업은 높은 독점적고물리윤을 얻기 위하여 세계도처에 현지국적을 가진 새끼회사들을 수많이 설치하고 그를 통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였다. 더 많은 독점적고물리윤획득에 목적을 둔 독점자본가들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은 한편으로는 다국적기업들내부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널려있는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하나로 일체화하여야 할 요구가 제기되게 하였으며 다른편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인구, 식량, 환경, 실업과 같은 국제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이로부터 1968년에 결성된 로마구락부(자연과학자, 실업가, 경제학자 등으로 무어진 부르조아미래학연구의 국제적조직)는 인구, 식량, 환경 등과 같은 문제를 몇개 나라의 테두리안에서는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범위에서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로마구락부의 이러한 주장은 전인류적가치라는 미명하에 경제위기의 근원이 자본주의제도 자체에 있다는것을 가리우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려는 독점자본가들의 요구를 대변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세계적문제의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세계화》에 대한 론조가 제국주의나라들에 류포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론조는 1990년대초 랭전이 종식된 이후 현대부르조아변호론자들에 의하여 현대부르조아경제리론의 한 조류로 형성되였다.

《세계화》론의 대표적인 제창자는 로버트 라이시이다. 이자는 《국가와 일》이라는 자기의 글에서 오늘날 국경과 애국주의는 시대에 맞지 않는것으로 되였으며 매 사람들은 《세계공민》으로서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동적인 《세계화》론을 설교하였다. 그리고 일부 변호론자들은 하나의 전일체가 형성되면 세계적범위에서 발생하는 인류의 공동문제를 공동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수 있다고 떠벌였다.

이 모든것은 사실상 제국주의나라 독점체들이 《인류의 공동문제의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해당 나라와 민족의 내부문제들에 마음대로 간섭할수 있는 국제적인 체제를 수립하려는 반동적궤변이다.

바로 이러한 궤변적인 《세계화》론에 기초하여 제국주의변호론자들은 《세계화》의 시대에 맞게 세계경제를 재편성할것을 주장하는 경제의 《세계화》론을 조작류포시키였다.

이자들은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적범위에서 생산력을 확대하고 기업활동을 전개하며 시장경제가 매개 나라의 국경에 관계없이 파급되는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인류의 부유한 생활에 대한 리상이 실현되고 지구전체의 지속적인 균형이 보장된다고 설교하였다. 결국 경제의 《세계화》론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발전된 경제력에 의거하여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와 민족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나아가서 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경제적지배체계를 세우려는 목적을 추구한 반동적인 궤변이다. 그것은 경제의 《세계화》책동에 말려든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기고 경제발전이 억제당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부르조아변호론자들은 2000년대이후에는 경제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서 《세계적경영》론을 들고나왔다.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은 결코 그 무슨 새로운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세

세계화》책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반동적인 이론이다. 이자들은 《세계화》의 시대인 오늘의 시대에 맞게 전세계적범위에서 경제가 단일화되자면 그에 맞게 경영관리도 반드시 《세계화》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세계적범위에서의 경영》의 담당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벌리는 《세계적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적기업》이란 다른아닌 종전의 다국적기업이다. 이미전부터 존재하면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구탄과 배격을 받고있는 다국적기업을 《세계적기업》으로 변신시켜 그에 의한 《세계적경영》을 주장하는것은 사실상 전세계의 진보적인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다.

이것은 이자들이 주장한 《세계적경영》론의 주요구성체제만 놓고서도 평가할수 있다. 《세계적경영》론의 주요체제는 《세계적기업》론, 《세계적기업》의 해외진출론, 《세계적시장관리》론, 《세계적생산관리》론, 《세계적조직 및 인사관리》론, 《세계적재무관리》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세계적기업》론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적형태인 다국적기업을 옹호하는 이론이며 이외의 모든 이론은 다 세계적범위에서 《세계적기업》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하는 이론들이다. 결국 《세계적경영》론은 그 구성내용의 견지에서 놓고볼 때 전세계적범위에서 《세계적기업》 즉 다국적기업에 의한 모든 경영을 주장하면서 매개 나라에서의 민족경제건설을 완전히 부인하고있는 반동적인 궤변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경영》론은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략과 지배주의책동을 더욱 합리화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 2.2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반동적본질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반동적본질은 한마디로 매개 나라들에서의 민족경제건설을 부인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기업을 제국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국제분업체제에 얹어매놓음으로써 저들의 지배와 예속을 영구화하자는데 있다.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먼저 세계체제를 실현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을 변호하는 궤변이라는데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고 세계체제를 실현하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체제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는것은 매개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결합되어있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로부터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가려는것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요구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가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키려는 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장애를 없애고 세계체제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세계화》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 《세계적경영》론을 들고나왔다. 이자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세계적경영》이 마치도 매개 나라와 민족에게 복리와 번영을 가져다주게 되는듯이 설교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짓주장이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

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의한 예측을 면할수 없으며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경제적예측은 반드시 정치적예측을 낳는다. 최근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그 무슨 경제발전을 기대하였던 나라들에서의 근로인민대중의 비참한 현실은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지 다국적기업에 의한 《세계적경영》에 말려든다면 자립적이며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제국주의변호론자들이 떠벌이는 《세계적경영》론은 결국 다른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을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꾀변이다.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전세계를 저들의 영원한 리윤증식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는 독점자본가들의 요구를 대변한 꾀변이라는 데 있다.

자본가들의 끊임없는 리윤증식은 시장의 확대와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얻기 위하여 자기 수중에 많은 자본을 집중시키고 생산능력을 방대한 규모로 확대하며 이에 기초하여 생산을 늘인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의 국내범위에서는 생산의 장성에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따라서지 못하여 거대한 규모의 《과잉》자본, 《과잉》상품이 생기게 된다. 독점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며 그 출로를 해외시장에서 찾는다. 결국 독점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나 전세계를 저들의 상품시장, 원료원천지, 자본투하지로 전변시키려고 한다.

시장의 존재여부는 자본가들의 운명과 직결되어있다. 그것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짜낸 잉여가치가 오직 시장을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실현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나 모든 나라와 지역의 민족경제를 단일한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전락시키려고 한다.

현대부르조아변호론자들은 《세계적경영》론을 부르짖으면서 매 나라들의 시장개방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역의 경제를 균등하게 발전시키자면 단일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교하였다. 현시대가 《모든 국가의 관심이 경제문제에 돌려지는 시대》이고 경제의 《세계화》가 오늘 막을수 없는 추세이기때문에 모든 나라와 지역의 경제가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지어 이자들은 《세계적경영》이 모든 나라의 경제발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가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세계시장에 속할 때에만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떠벌이였다.

나라마다 경제부문구조와 자연부원상태, 자금보장조건이 다르며 과학기술발전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은 생산력발전수준이 낮고 경제의 부문구조가 기형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시장을 개방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벌린다면 독점자본이 물밀듯이 쓸어들어와 이 나라들의 민족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나아가서 이 나라들의 경제가 파국과 예측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천적으로 시장경제방식을 강요당한 많은 나라들이 모두 거둬드는 파국적경제위기를 겪고 다국적회사들이 전세계 발전도상나라들을 대상으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고있는것은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진의도에 대한 적라라한 고발로 된다.

이와 같이 세계의 모든 나라와 지역의 민족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세계적인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전환시킬것을 설교하는 《세계적경영》론은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놓으려는 독점자본가들의 강도적인 요구를 대변한 반동적인 꾀변이다.

### 2.3.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파산의 불가피성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세계적경영》론을 고안해내고 경제의 《세계화》를 부르짖어도 그 파산은 리론실천적으로 불가피하다.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파산의 불가피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세계인민들은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정치적예속은 물론 경제적예속과 불평등을 중국적으로 청산하고 다같이 세계의 주인으로 살것을 념원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의 이러한 지향과 념원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이 존중시되고 온 세계가 자주화될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경제의 《세계화》론과 《세계적경영》론의 부당성을 깨닫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300여년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최대규모의 세계적인 대중적투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2011년 9월 17일 뉴욕 맨하탄의 월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밑에 시작된 반자본주의투쟁이 10월 15일과 16일에는 80여개 나라의 1 500여개 도시에서 수백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의 반자본주의투쟁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자주화된 새 세계를 갈망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오늘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으로, 생활적요구로 되고있으며 자주의 흐름은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다. 이 거세찬 자주의 흐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은 제아무리 기만과 위선의 보자기를 쓰고 경제의 《세계화》론을 합리화하려고 하여도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으로 하여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파산의 불가피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다각적인 국제경제관계가 이루어지고있는 시대적추세에 역행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제국주의열강들사이의 종속관계는 오늘날에 와서 점점 희미해져가고있다. 제국주의가 한 나라를 중심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재편성되었던 시기에도 이룰수 없었던 《일극화》를 그것이 다 허물어져가는 오늘의 조건에서 이루어보겠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꾀변이다.

랭전이 종식된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호상관계는 결탁관계로부터 배척하는 관계로 점차 변화되고있다.

1993년 11월에 창설된 유럽동맹은 처음에는 다른 제국주의나라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 호상관계는 어느 한쪽도 양보할수 없는 리운문제로 하여 서로 배척하는 관계로 넘어가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생태원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절대로 달리될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일극화》를 반대하면서 다극화를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랭전종식이후에 국제경제기구들이 수많이 조직되고있는 현상향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랭전종식이후 조직된 국제경제기구들에는 1992년 8월에 창설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1999년 5월에 창설된 흑해경제협력기구, 2008년 6월에 창설된 브릭스 등이 있다. 이 기구들은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적인 경제체제를 마스고 국제경제관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파시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현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기구들의 연속적인 출현은 오늘의 세계가 일극화가 아니라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중 브릭스의 영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있다. 브릭스나라들은 세계자원개발과 생산, 수출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세계수출입총액에서 브릭스가 차지하는 몫은 36.3%였으나 2011년에는 45%로 늘어났으며 경제규모는 2001년 세계경제의 6분의 1로부터 2012년에는 4분 1정도에 도달하였다. 또한 명목국내총생산수준이 2005년에 4조 1 000억US\$로서 서방 7개국의 14.8%에 불과하였지만 2035년에 가서는 62조 6 000억US\$로서 서방 7개국의 62조US\$를 능가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것은 새로 출현하는 국제경제기구들의 규모와 영향력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이로 하여 일극화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의 《세계적경영》에 대하여 떠벌일수록 세계인민들의 더 큰 반대배격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종당에는 망하고야말것이다.

오늘 《세계적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략책동은 국제적인 비난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여러 지역, 기구회의들과 유엔총회를 비롯한 큰 규모의 국제회의장들에서도 이를 규탄배격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이와 같이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은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자주시대의 흐름과 다각적인 국제경제관계가 이루어지고있는 시대적추세에 역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파산을 절대로 피할수 없다.

### 3. 결론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없다. 혁명적인민들은 절대로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침략과 략탈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의 본성의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하여 떠벌이는 현대부르조아《세계적경영》론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며 더욱더 집요하게 강행하려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 제국주의가 더욱더 쇠퇴몰락하면서 최후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을따름이다.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경제건설이 진행되고있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것없이 자기 나라 인민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를 건설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경제의 《세계화》, 《세계적경영》론, 《세계적기업》론